

'5·18 북한군 개입' 허위사실, 국정원은 알고 있었다

'5·18 진상조사위' 결과 중간보고서 보니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과 관련, 국가정보원은 공식 조사를 통해 허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40년이 지나도록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로 5·18민주화 운동이 폄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이 이 사실을 알고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17일 '2021년 하반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활동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조사 활동 사항을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탈북민들에 대한 조사에 주력했다. 조사는 ▲직접 침투 주장자 ▲북한 체류시 북한군 개입설을 들은 사람 ▲일명 '광수' 지목자 등 6명과

노무현 정권 때 검증 마치고도 밝히지 않아 비판 목소리

연말 최종보고서 제작 앞두고 진상규명 애타는 시민들

참고인 등 12명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진행했다.

이과정에서 진상조사위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2006-2015년 북한군 개입설을 자체적으로 조사했던 자료를 제공받았다.

자료 분석 결과 국정원은 이미 북한특수군 침투 주장이 사실무근 및 허위 진술이라고 결론 내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다.

국정원은 2006년 탈북민 A씨가 잡지 기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 5·18에 대한 북한특수군 침투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과 관련, 이는 일관성 없는 소문 수준의 첩보라고 평가했다. 당시 해상 및 전후방

지역 육상에 적 침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경계태세 또한 붕괴된 바 없으며, 간첩통신 증가 등 특이동향도 없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자신이 광주에 직접 남파됐다가 계엄군과 교전 후 복귀했다고 주장하는 B씨에 대해서도 지난 2009-2010년간 직접 면담조사를 3차례 실시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했는데, 그 결과 B씨가 동향 출신 C씨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5·18에 참여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며, 특히 B씨는 최초 입국 당시 작성한 합동신문조사서 확인결과 당시 조사과정에서 5·18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기간(1980년 5월 18일- 27일), 계엄군 총·칼에 숨진 민간인을 잠정 집계했던 숫자도 167명에서 166명으로 한명 줄었다. 이는 당시 방위병으로 출근 도중 계엄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람을 민간인이 아닌 군 사망자로 분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9년 진상조사위 출범이후 4번째(중간보고서)이다. 진상조사위가 올해 연말 최종 국가보고서를 제작하기로 함에 따라 올 상반기 중간보고서가 사실상 마지막 일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개월 만에 미완의 과제들을 모두 규명해 중간보고서에 담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진태 5·18상임이사는 "조사위는 여러가지 한계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가해자들의 증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매우 치밀하고 전문적인 조사활동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시간이 부족했다면 조사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진상조사과정의 충실성과 완결성을 지금쯤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춥다 추워 전국적으로 한파가 몰아친 17일,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 앞에서 장사 중인 상인들이 모닥불을 피우며 추위를 견디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제이홉 인스타 그램 캡처.

BTS 제이홉, 고향 광주 왔다

동구 '케이팝 스타의 거리' 방문 사진 SNS에 올려

방탄소년단 제이홉(J-HOPE·본명 정호석)이 본인 생일을 맞아 SNS에 광주시 동구 '케이팝 스타의 거리'를 방문한 사진을 올려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7일 제이홉이 자신의 인스타 그램에 광주시 동구 케이팝스타 거리를 방문한 사진을 올렸다.

올려진 사진들은 '홉 월드' 팬 메시지 조형물과 솔로곡 '데이드림' 뮤직비디오 아트워크가 있는 의자, 솔로곡 '치킨 누들 수프' 아트커버 벽화를 방문한 인증 사진이다. 직접 의자에 앉은 사진을 비롯 '치킨 누들 수

프' 벽화 앞에서는 춤을 추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인증 사진을 찍은 날짜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주위 시선을 의식한 듯 새벽 시간대 사진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본 팬들은 '꼭 방문하겠다'는 댓글을 SNS에 달고 있다.

케이팝 스타의 거리 조성 이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팬들의 목소리도 높다. 치킨 누들 수프 벽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는 팬들도 있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청년 구직자' AI·VR 프로그램 운영

광주 북구, 만 19~39세 대상 접수

광주시 북구는 빠르게 변하는 채용 방식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 구직자 대상 '2022년 인공지능(AI) 역량검사 및 가상현실(VR) 면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공지능 역량검사는 사고와 행동패턴을 분석하는 비대면 면접 프로그램으로 광주글로벌모터스 등 500여개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 실제 응시 과정처럼 영상 질의응답, 성향검사, 역량분석 게임 등으로 이뤄지며 1시간 정도 진행된다. 검사 후에는 개인별 역량수준, 직군 적합도, 오답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상현실 면접 체험은 희망하는 직업군을 선택하면 가상의 면접관이 등장해 30분 동안 기술문제를 질문한다.

북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참여 대상이며 북구청청년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선대, 사학혁신 토론회 열어

교육부가 공모한 '사학혁신 지원사업'에 선정된 조선대학교의 사학혁신사업단이 최근 '법인운영의 공공성과 이사구성의 개방성과 합리성 강화'에 관한 토론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교육부의 사학혁신 지원사업은 학교법인의 공공성 확보가 대학발전으로 연계됨을 확인하고, 사례를 도출해 공영형 사립대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토론회는 법인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이사구성을 개방하고, 이사구성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으며, 박태성 학교법인 감사의 '학교법인 설립자의 친인척 이사장 제한', 최홍열 교수(법학과)의 '법인이사 중임기간 제한'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조선대 김시욱 교수평의회 의장, 양고승 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송호찬 총학생회장, 김용래 총동창회 사무총장,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최호용 성공회대학교 법인사무국장 등 법인 및 대학 구성원 대표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6년 연속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호남대학교가 교육부 주관의 '2021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IEQAS) 평가에서 각종 기준을 통과해 6년 연속 인증대학에 선정, 다시 한번 글로벌 대학으로서 위상을 공인받았다.

호남대는 지난 2017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6년 연속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자리를 굳혀 가고 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IEQAS)는 유학생들의 불법 체류율, 중도 탈락률, 언어능력, 등록금 부담률,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률, 기숙사 제도를 및 각종 지표를 매년 모니터링해 평가하는 제도이다. 호남대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학부뿐만 아니라 어학연수와 대학원생까지 포함된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입국 현황과 자가 격리 및 방역지침 준수 등 대학의 위기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추가 지표가 들어간 모니터링 평가를 통과해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으로 호남대는 11개 언어로 소개되는 교육부 공식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 공식되고,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선발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부 재정지원 사업 등에서 다양한 혜택과 함께 대학특성화사업(국제화) 등 향후 국제화 관련 재정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받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이제는 “수목장” 입니다



문종묘지
가족묘지
개인묘지

>>

수목장 전환



방치된 묘지 70%(추정)





기족 수목장 조성 과정



기족 수목장 조성 과정



기족(30평 이하) 수목장

대가장묘

저출산 고령화의 그늘
후손들에게 묘지 관리를 기대하거나 의지할 수 있을까?

062) 464-9190